

젠슨 황 약속 지켰다…한국, GPU 1만3000장 도입

초도 물량 국내 반입 확인…B200 포함 다기종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에 내년 초 우선 공급

정부가 엔비디아와 협의한 그래픽처리 장치(GPU) 공급 계획에 따라 초도 물량 일부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약 1만3000

개의 GPU를 공급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관련 재원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조4600억원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된 GPU는 엔비디아의 최신 B200

과 이전 세대 등 여러 기종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역력이 있는 만큼 확보한 GPU를 내년 초부터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 분야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GPU 운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센터 인프라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보유한 상면을 활용한다. 정부는 확보한 GPU를 해당 센터에 설치하고, 연구자나 기업이 필요한 만큼 서비

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난 10월 말 방한해 한국 내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기반을 함께 가진 나라”라며 “AI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공급 계획은 총 26만여 장의 GPU를 순차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파격적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정부에 5만개, 삼성·SK·현대차그룹에 각각 최대 5만개,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개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남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산학연에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입된 GPU는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연말 카운트다운 캠페인 스타트

15회째 ‘현대 위시 테일’…악뮤 협업 캐럴·판타지영화 공개

현대자동차는 연말 카운트다운 캠페인 ‘현대 위시 테일’(Hyundai Wish Tale)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새해를 고객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현대 위시 테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15회째를 맞아 ‘소망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는 주제로 악뮤(AKMU) 이찬혁과 함께한다.

현대차는 카운트다운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영화 ‘더 스노우위시맨’(Snowish Man)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는 첫눈에 담긴 소망으로 탄생한 스노우위시맨과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로봇 스콧이 사람들의 새해 소망을 이뤄주는 내용을 담은 10분 분량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는 10일 현대차 공식 유튜브에서 본편이 공개된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이찬혁이 편곡·개

사하고 직접 부른 캐럴 ‘위 위시’(We Wish)도 현대차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일 공개한다.

또 31일 자정에는 캠페인의 하이라이트인 ‘위시 카운트다운 필름’도 선보인다.

위시 카운트다운 필름은 1500대의 드론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동영상으로, 현대차의 미래 기술 비전을 상징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15년간 고객과 함께 해온 연말 카운트다운 캠페인은 현대차의 중요한 자산이자 진심의 표현”이라며 “이번 ‘Hyundai Wish Tale’ 캠페인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위한다는 현대차의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 비전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1일부터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통신 3사, ‘PASS 신분증 결제’ 출시

신분 확인·결제 한번에…세계 최초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에서 술·담배 등 성인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고, 별도로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는 PASS앱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두면, QR코드 스캔으로 한 번에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용

카드만 추가 등록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대기 시간과 절차가 줄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통해 전자 확인된 신분증 이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GS25편의점에서 1일부터 본격 도입되며, 비버슈즈가 설

치한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입력된 성인인증과 결제 데이터는 결제 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 NICE정보통신을 통해 암호화된 GS25편의점에 안전하게 전달된다. NICE정보통신은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신분증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 3사는 향후 편의점·자판기, 셀프 계산대 외에도 전국 주요 관광명소 등 성인인증이나 거주지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PASS 신분증 결제는 세계 최초로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3920대에서 소폭 내린 채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71p(1.06%) 오른 922.38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코스피, ‘롤러코스터’ 장세 속 3920대 마감

코스닥은 정부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에 상승 ‘922.38’

코스피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3920선에 하락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이를 연속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6.22p(0.16%) 내린 3920.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1.33p(1.05%) 오른 3967.92로 출발, 한때 3977.31까지 올랐으나 상승 폭을 축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내린 채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기관이 233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외국인인 각각 529억원, 2155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직전 거래일 외국인인 코스피 시장에서 2조370억원 어치 순매도했으나, 하루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이날 국내 증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며 ‘현기증 장세’를 보였다.

앞서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오후 조기 폐장한 가운데 거래는 한산

했으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에 코스피도 1% 넘게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름폭을 줄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주 위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 하단은 지지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0%), SK하이닉스(1.51%) 등 반도체주와 LG에너지솔루션(1.23%), 삼성바이오로직스(2.61%), KB금융(1.20%) 등이 올랐다.

현대차(-2.68%), 기아(-1.58%) 등 자동차주와 두산에너지(-1.96%), HD현대중공업(-3.74%),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1p(1.06%) 오른 922.38에 장을 마치며 지난 26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직전 거래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이었다. 연합뉴스

‘창립 58주년’ aT “농어촌 발전·식품영토 확장 앞장”

유공 직원 포상·유관기관 지원업체 감사패 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일 나주 본사에서 창립 5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포상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지원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공사와 관련업체의 노력과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식품산업의 국내의 발전

을 지원하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는 신념과 ‘농수축산식품 수출은 대한민국의 식품영토 확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추진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aT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7대 혁신방향 정립 및 실행 △신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등 유통구조혁신 추진 △중동 권역 시장

한우 최초 수출 △생선·현장 중심 조직 개편 △AI시대 맞춤형 조직 역량강화 및 상용화 추진 등 농수축산식품 산업과 조직의 변화를 함께 이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홍문표 aT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 모든 임직원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농어촌·농어민(축산)의 발전과 식품영토 확장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조한천 기자 pose007@



aT는 1일 나주 본사에서 58주년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쿠팡 정보유출’ 부실대응 도마

집단소송 본격화…불매 운동도

초유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피해 고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해외의 직구 때 이용하는 개인통관 번호까지 모두 새어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쿠팡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앞선 공지 내용만 되풀이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고객별로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피해자, 피해 범위, 유출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쿠팡에서 이미 지난 6월 정보 유출이 시작됐으나, 회사가 5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해킹이 아니라 전직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직원이 외국인이고, 이미 퇴사 후 출庫한 상태라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의 정보 보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 사고로 지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미국 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 했겠는가”라며 “쿠팡은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10여 개이고 회원 수는 24만5000여명이다.

소비자단체는 쿠팡 회원 탈퇴와 불매운동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다음, 11년간 카카오와 분리

법적 제공 주체 ‘AXZ’로 변경

인터넷 포털 다음이 카카오로부터 정식

으로 분리되는 행정적 절차를 끝냈다.

카카오는 연내 분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서비스의 법적 제공 주체가 카카오가 아닌 자회사 에이엑스지(AXZ)로 변경됐다.

이로써 다음은 카카오와 2014년 합병 이후 11년만에 별도 법인으로 완전히 분리하게 됐다.

다음 서비스가 카카오와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돼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다음 서비스와 관에서는 ‘주식회사 에이엑스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카카오 관련 이용약관에서도 다음 관련 조항은 빠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 서비스의 법적 제공 주체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점검도 마쳤다”며 “연말까지 영업 양수도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숏폼과 AI 서비스를 접목한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